

# 이 세상에 내것이 뭐가 있겠는가



##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법홍 스님 (순천 송광사 회주)

한국불교의 승맥을 면면히 이어온 순천 송광사, 조계산의 넉넉한 품을 입은 송광사는 언제나 포근함을 전해주는 종립이다. 이맘때면 참배객의 발길이 잦아들어 경내는 한산하다.

하지만 총림의 이면에는 겨울안개에 뜬 대중들의 치열한 구도열기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

송광사를 휘회 감아 도는 개울을 지나 대나무 숲에서 회주 법홍 스님을 만났다. 허름한 누더기를 걸친 채 한가로움을 즐기고 계셨다. 언제 누가 찾아오더라도 항상 반가워 하는 스님이 이날따라 꾸중 섞인 농담으로 멀리서 찾아온 손을 맞는다.

"나눔을 게 아무 것도 없는데 무엇 하러 예까지 왔어! 난 큰스님 아니야."

하지만 스님은 하룻밤 묵어가고 싶다는 요청에 놀리던 방에 손수 장작을 땀다. 웬만한 산사에는 보일러를 설치해 난방을 하지만 스님은 여태 보일러를 들이지 않았다. 체 몸 편하자고 소중한 정재를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탁본에 옆에서 모시는 사자스님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요사에는 '방우산방(放牛山房)'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가지런히 정리된 앉은뱅이책상에서 군더더기 없는 수행자의 기품을 느낄 수 있었다.

법홍 스님이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책장으로 시선을 던진다. 스님은 고려대 재학시절 책에 문혀 살던 국문학도였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볼스토이의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읽었고,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보며 눈물짓곤 했다.

"산승이 뭐 별게 있나. 허탈 없이 책 보면서 살고 있어. 저 책상에 있는 책, 절반도 못 읽었구먼."

스님의 말을 끝이골대로 들었다간 정말 그렇게 생각할 일이지만, 스님의 일과 가운데 책을 읽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기도와 참선 등 평생 해오던 수행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미 생활이 되어버린 기도와 수행을 스님은 굳이 따로 표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이라.

오후 5시, 저녁공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스님은 하던 말을 멈추고 미련 없이 털고 일어선다. 먼 길 왔었네니 공양 먼저 하란다. 주석하고 있는 화엄

### “모든 것 줄때 온 세상 갖게 되지” 아낌없이 다 내주기로 유명 매일 모든 전각 돌려 기도 32년째 수련회 법문은 늘 스님 몫 특출난 암기력의 비결은 ‘메모’

전을 나서서 후원으로 향한다. 큰절의 어른스님이나 따로 공양상을 받을 만도 하건만, 스님은 대중공양 원칙을 절대로 깨는 법이 없다.

"요즘 대중생활을 꺼리는 수행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왜 대중생활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야. 선방에 앉아서 화두 드는 일만 수행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 함께 부대끼면서 배우는 것도 수행이야. 수많은 관제 속에서 공존하는 것이 부처님 법인데..."

법당마다 울려 퍼지던 예경소리를 타고 해가 누워 누워 조계산을 넘은지 30여분도 채 되지 않아 송광사에 철쭉 같은 어룡이 깔렸다. 화엄전을 병풍 치듯 둘러싼 대나무 숲으로 별이 쏟아진다.

부인의 숲에서 더운 물을 길어 세면한 법홍 스님이 불청객을 위해 책이며, 과일이며 이것저것을 내놓는다. 스님은 늘 이렇다. 행여 누구라도 찾아오면 아까운 것 없이 모두 내주고 만다. 뭐라도 주어야 직성(直成)이 풀리는 모양이다.

"이 세상에 내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 것이라고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자주 '내 것'에 집착하거든. 소유함이 없이 모든 것을 줌으로써 온 세상을 가질 수 있는데 말이야."

스님이 건네는 선물 가운데 책은 반드시 챙겨주는 '필수품'이다. 스님이 20여년간 나누어준 책이 어렵잡아도 3만여 권이 넘는다.

"책에 길이 있어. 난 그 길을 주고 싶은겨야. 받은 사람이 내가 선뎠한 책을 보면서 발심을 하면 그보다



누구에게든 아끼운 것 없이 다 내어주는 법홍 스님은 모든것을 줌으로써 온 세상을 얻는다고 믿어준다.

머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 받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받아서 읽고 발심하는 사람이 되게나."

스님은 기억력이 비상하기로 유명하다. 좋은 경구나 책의 내용을 달달 외는 실력은 나이를 먹어서도 변함이 없다. 대중을 향해 실재없이 법문하는 것을 들으면, 부처님 말씀을 빠짐없이 기억했다는 아난존자를 떠올리게 된다. 스님은 경전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누구에게라도 들려주고 싶은 문구를 집하면 반드시 노트에 기록해 놓는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암기력을 선보이는 스님만의 비법이다. 그렇게 정리해놓은 노트가 5권이나 된다.

나이 탓으로 상좌들의 법문 요청에는 거의 응하지 못하지만, 송광사에서 열리는 수련회의 법문은 늘 스님 몫이다. 이때마다 특출난 암기력은 위력을 발휘한다. 끊이지 않고 튀어나오는 스님의 경구 외는 소리를 듣는 이들에게서 웃음꽃이 활짝 피기 때문이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었던 스님은 오전 5시 성철



좋은 경구를 모아 정리해놓은 노트가 5권이나 된다.



매일 아침 경내 모든 전각을 돌며 참배하는 법홍 스님.



새벽 5시 자리에서 일어나면 경전독송으로 하루를 연다.



스님은 질문을 받으면 자상하게 궁금증을 풀어준다.

### 33년째 송광사 주석

**법홍 스님** 1931년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불심이 돈독한 집안에서 자란 법홍 스님은 58년 고려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인 59년 대구 동화사에서 효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통도사 해인사 상원사 대승사 미륵사 망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한 법홍 스님은 사형인 구산 스님의 청으로 74-77년 송광사 주지를 지냈으며, 84년 조계총림 유나를 역임했다. 이후 33년째 송광사에 주석하고 있다.

##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불제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등 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정품)**

-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갈 때까지 않으며 필라멘트가 6배 (특 필라멘트)로 빛이 윤택이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건전지용 초 광생, 탐돌이 행사용  
정사조용 및 초롱 같이대

**연 등 (정품)**

법당용(공단형),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구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 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 단집 수미단 전문 조성

천불전,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인등, 현판, 주련 등 전문 제작

**누리 불교 예술원**  
박 연호 대표

TEL : 031)543-7073  
H·P : 011-703-9130  
FAX : 031)543-9162

www.nuribul.com

# “우주와 나는 둘이 아니지”

## 법흥 스님의 가르침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이 인간고를 벗어나고 성불하는데 있습니다. 생명의 세계에서 해탈의 세계로 들어가는 종교가 불교요 사람사람마다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음을 시인하고 자력으로 피안에 가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타력으로 천국에 가고자 하지만,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일체법을 등불로 삼을지언정 남을 믿거나 남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 계정해 삼학을 뒤사서 생사해탈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계율을 생명같이 여기고 청정한 마음으로 수행하면 지혜가 밝아져요. 수행할 시간이 많고 많은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시간은 나를 위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짧아서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 불교의 연기법은 아주 심오한 사상입니다. 불가에서는 우주창조의 신, 조물주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고 우주의 대진리를 체달하는 깨달음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이를 위한 모든 과정을 통틀어도 연기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했고, <아함경>에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므로 저것이 생긴다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금생의 부부는 전생에 8천겁 인연이라야 가능하고, 9천겁 인연이면 금생에 형제간으로 태어나고 10천겁 인연이면 모자나 부녀간이라는 혈육의 인연이 되고, 한집안 식구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7천겁의 인연이라야 한다고

## 청정한 마음엔 생멸없어... 본래면목 깨쳐야 마음공부하려면 청정심·감사심·용맹심 내야

했습니다. 또한 '제법이 인연생이기 때문에 무자성이고, 무자성이기 때문에 거레가 없고, 거레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필경 공하고, 필경 공하기 때문에 마하반야바라밀이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연의 지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무상함과 육신의 허망함을 느끼지 못하면 발심이 되지 않습니다. 간절한 생각이 안드는데 어떻게 발심이 나겠어요? 사람은 태어났으니 늙고 늙으니 병들고 병드니 죽게 됩니다. 언젠가 죽어야하는 숙명을 지닌 인생이고 일시적으로 잠깐 살다가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가아(假我)입니다. 진짜 나는 우리가 깨우쳐 알아야 할 '본래면목'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빛깔도 없습니다. 청정한 이 마음자리를 <반야심경>에서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이라고 했어요. 환히 스님은 <금강경오가해>에서 '천겁을 지내도 옛이 아니고 만세를 뻗쳐도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생멸이 원래 없는 것'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청정한 마음자리는 생멸이 없습디만,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죽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부단히 살고 있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죽음이 문턱으로 접근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생과 사는 동안 시점에서 출발하여 모순을 내포하고 있어요. 영원히 살고자 하는데 의지는 결국 죽음을 의해 단절되고 마는 것이 모순이고 이율배반이예요. 그래서 생즉사(生即死)요 사즉생(死即生)인 것입니다. 불교의 공부는 마음공부입니다. 마음은 상(相)이 없습니다. 마음 씀씀이에 따라 정토가 되기도 하고 고힬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 마음을 맑는 것이 수심(修心)이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양심(養心)이요 마음을 쓰는 것이 용심(用心)입니다. 마음공부를 위해 우리는 세가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청정심과 감사심, 용맹심이 그것이지요. 이렇게 마음을 쓸 줄 알아야 지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선은 왜 해야 할까요. 강력한 정신집중의 현상이 아니면 번뇌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은 학문이 아닙니다.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마음 씀씀이에 따라 정토가 되기도 하고 고힬가 되기도 한다고 강조하는 법흥 스님.

예요. 그래서 설량이 달고 소금이 짜다는 것은 맞든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언젠불급입니다.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스님들이 왜 그토록 고힬를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깨치고 보면 생사의 근원을 알게 되고 선악의 근본을 알게 되고 물질과 마음의 체성을 알게 되고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지요. 요즘엔 가톨릭 신부나 수녀들도 절에 와 참선을 배우려고 합니다. 서양의 물질 문명에서 한계를 느끼고 동양의 정신문명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지요.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려면 동양의 정신문명, 그 중에서도 불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각이 서서히 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석학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30여년간 일본 교토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물질의 힘과 정신적인 도덕의 부조화가 현재를 위기와 공포로 몰아 넣고 있다"면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고차원적인 종교의 힘이 아니면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양에서 실존철학이 나온 것도 스스로의 한계에 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기계의 노예가 되고 종속화되었기 때문에 비판적인 관점에서 본래의 나를 찾으려는 것이었지요. 실존철학은 자신을 알고 사는 자기상실의 시대에서 벗어나 본래적인 자기로 돌아가려는 탈출구가 된 것입니다.

원공법계 제증생(願公法界 諸衆生) 자타일시 성불도(自他一時成佛道) 원컨대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한 날 한 시에 깨닫게 하소서.

정리=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51>



### 농친 기차는 아름답지 않다 (1)

어느 날 아난 존자는 부처님을 모시고 가다가 사위성 입구에서 어떤 불쌍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마음이 온화한 성품의 아난 존자는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더할 수 없는 연민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청하였습니다. "부처님, 제발 저 할머니에게 다가가 주십시오. 부처님의 몸에는 32가지 뛰어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듯하고 빛이 납니다. 그런 부처님을 뵈게 되면 저 할머니는 마음에 더 할 수 없는 기쁨을 일으킬 것이요, 그러면 마음이 열려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처님은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 할머니는 나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하지만 아난 존자는 할머니가 가엾다는 생각에 거듭 부처님께 청하였고 부처님은 그런 아난 존자의 청에 못 이겨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처님이 할머니 앞으로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를 뒤로 돌렸습니다. 마치 뒤에서 누가 대답하게 부

리고 아무런 기대도 설명도 없이 텅텅히 이리저리 시선을 돌리는 할머니. 인연이 빚겨가도 이렇게 빚겨갈 수 있을까요?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하다못해 왜 이렇게 자꾸 앓을 가로 막느냐며 손사래라도 쳐서 부처님과 어떤 필마라도 마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질없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가장 불쌍한 여덟 종류의 삶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과 축생과 아귀에 사는 삶, 장수하고 행복이 넘쳐나는 장수천(長壽天)과 변지(邊地), 윗타라쿠루에 사는 삶, 신체가관에 너무나 큰 장애가 있는 삶, 세속의 잡다한 지식에 마음이 빠져서 살아가는 삶,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에 태어난 자의 삶이 그것입니다.(유마경) 이 여덟 가지 삶이 왜 불쌍한가 하면, 고통이 너무 모질거나 행복이 너무 넘쳐나서 또는 너무 많은 이론이나 그릇된 견해들에 빠져 있어 그 마음에 손톱만큼의 여백이 남아 있지 않아 부처님과 같은 성자들의 귀한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덟 가지 삶은 어떻게 됩시다. 현실적으로 감내해야할 일들이 너무 커서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일은 부처님이 다가갔

## 구제될 인연이 없고 부처를 볼 수 없는 사람은 곁에 부처님이 있어도 소용없다

르는 소리라도 들었다는 듯, 이번에는 부처님이 할머니의 시선이 향해있는 뒤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할머니는 고개를 다시 앞으로 돌렸습니다. 부처님은 오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머리를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부처님이 왼쪽으로 다가갔을 때 할머니는 오른쪽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아야 할 때에 숙였고, 숙여야 할 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몇 번이나 다가가서 그녀와 눈을 맞추려 하였건만 끝내 할머니는 두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부처님이 자기 옆에 와 있다는 것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소용없다. 구제될 인연이 없고, 부처를 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다." 할머니의 곁을 떠나면서 부처님은 이렇게 조용히 탄식을 하였습니다.(대지도론) 이 글을 읽으면서 할머니와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려보았습니다. 인터넷음이 진득 담긴 시선으로 다가서는 부처님.

지만 저 할머니처럼 아예 의식조차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푸대접하고 외면하는 경우도 경전에는 이따금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묘법연화경>에서는 부처님이 지금까지 들지 못했던 가장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해도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 마음에는 여덟 가지 금급증이 떠오릅니다. 첫째는 대체 부처님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처님을 몰라도 한평생 사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을 만났을 때 법문 좀 듣지 않았기로서니 뭐 그리 엄청난 행운을 농친 양 호들갑을 떠느냐 이겁니다. 둘째는 그렇게 훌륭한 말씀이라면 왜 부처님은 외면하거나 떠나가는 사람들의 웃자락이라도 부여잡고 설득하고 강제라도 들려주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속) \*위 <대지도론>의 이야기는 <인도불교사> (에피엔 라모프 지음, 호진 옮김, 시공사, pp.104-105)에서 재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 이미명(동국대학교원역연구원)

### 방생과 성지 순례의 도량 화마(火魔)도 비껴간 영험의 도량

영국사는 5점의 보물과 천연기념물(은행나무) 등 많은 문화재를 품고있는 천년고찰로서 낙산사와 더불어 산불로 인하여 소실될 뻔 한 도량이었으나 다행히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화마가 도량을 비껴간 신비의 도량입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제 5교구 천태산 영국사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1397번지 종무소 043)743-8843

### 고려의 영복인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02)730-0705

유람선으로 출발하는 중국 산둥성 성지 순례 5박 6일 3월 3일 출발

여행경비: ₩ 450,000원 (와동페리 이용)

북경 사찰 순례 및 관광 7일 (유람선 이용 금요일 출발) ₩ 450,000원 (비자, TAX 별도)

**여행조건**

- 국제선박료, 현지 차량, 입장료, 식사비, 중국비자비, 현지 가이드 기사 팀 등 제 비용 포함(개인 경비만 제외)
- 선내 2박은 다인실 기준, 현지 호텔은 2인 1실 기준
- 출발은 10명 이상 가능
- 10명 이상 단체는 타 페리 이용 출발요일 변경 가능하니 문의 요망

| 일 자 | 도 시 명 | 교 통 편 | 순 례 일 정  |
|-----|-------|-------|--|
| 제1일 | 인천    | 화동페리  |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17시 승선, 인천항 출발, 선내 휴식   |
| 제2일 | 청주    | 전용버스  | 08시 석도항 도착 / 인공 수속 후 청주로 이동 불교 문화 유적이 잘 보존된 '청주 박물관' 관람 '다산석굴' 참배후 치박으로 이동 호텔 휴식   |
| 제3일 | 치박    | 전용버스  | 제남으로 이동 명대 4대 사찰인 "영암사" 순례 후 태안으로 이동 고려조 만공대사께서 정권하신 "보조사" 순례 케블카 이용 태산 등성 후 호텔 휴식 |
| 제4일 | 태산    | 전용버스  | 석가모니 부처님의 佛齋를 모신 "보상사" 순례 제남 경유 유방으로 이동 양가부 민속촌 관람 → 호텔 휴식                         |
| 제5일 | 유방    | 전용버스  | 석도로 이동 장보고 대사께서 창건한 "최신법화원" 순례 석도항으로 이동 출국 수속 및 승선                                 |
| 제6일 | 인천    | 화동페리  | 18시 출항, 선내 자유시간 및 휴식 09시 인천 도착 입국 수속 후 해산  |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